

국군의 힘, 훈련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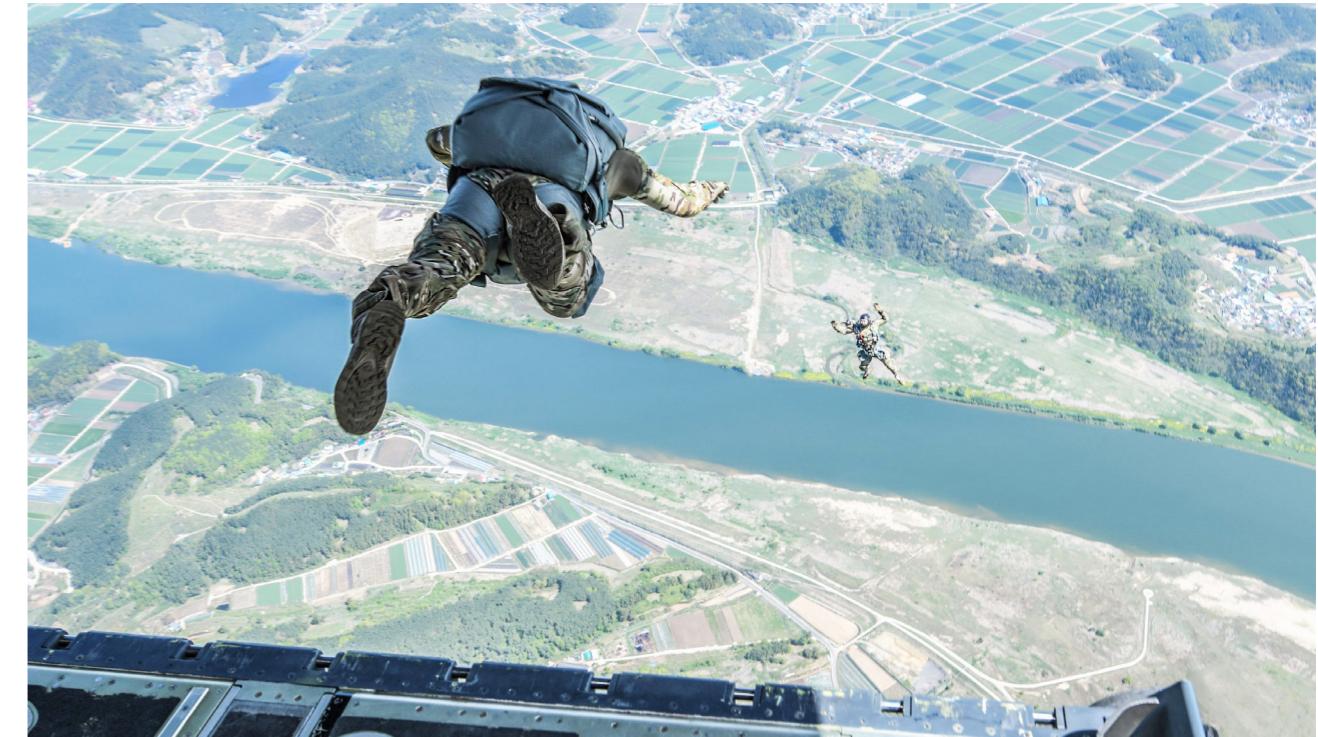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국군의 훈련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일선 군부대의 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되었지만 훈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세계 속의 강군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힘은 훈련에서 나온다. 4월 한 달간 열린 육·해·공군 일선 부대의 각종 훈련현장을 짐작 조명했다.



그들의 공중강하, 아름답고 완벽했다

공군5비행단 공정통제사 강하훈련



4월 21일 실시한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낙하산 강하훈련에서 공정통제사들이 고공강하를 하고 있다. 사진 노현우 하사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은 4월 21일 경남 일대 공중강하훈련장에서 20-3차 공정통제사(CCT·Combat Control Team) 낙하산 강하훈련을 실시했다.

공정통제사는 전술공수 및 특수작전 임무를 진행하는 소수정예 특수부대원으로 목표 지역에 먼저 투입돼 공중전력과 지상전력을 연계하는 항공기 유도·관제 및 통신시설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대규모 재해·재난 시에는 인명구조와 해외 공수 임무 등을 펼친다.

이날 강하훈련에서 공정통제사들은 실질적인 전술 숙달 및 공중강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1600피트 상공에서의 기본강하와 5000피트 상공에서의 고공강하를 실시했다. 임무 특성상 공중강하는 늘 하던 훈련이지만 임하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적진에 뛰어든다는 각오로 시종 긴장감이 역력했다.

공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가 최강의 전

투력을 발휘하면서도 그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이다.

공정통제사들은 먼저 지상에서 낙하산을 포장하고 강하에 필요한 장구를 챙기며 공중강하를 준비했다. 또 항공기 이탈 및 착지 시 자세 습득 등 사전 지상훈련을 반복하며 완벽한 공중강하가 되도록 했다. 이어 C-130J 수송기에 탑승한 공정통제사들은 목표 상공에서 강하 신호가 떨어지자 즉시 강하해 자세를 유지하며 연막탄이 피워진 지상 드롭존(Drop Zone)에 정확히 안착했다.

이날 강하훈련에 참여한 259공수지원대대 공정통제사 이필준 상사는 “끊임없는 고강도 교육훈련을 통해 낙하산 강하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으로 임무수행능력을 꾸준히 향상해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조

서현우 기자

실전적 훈련으로 미래전 핵심인재 키운다

육군보병학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훈련



4월 21일 육군보병학교 동북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한 교육생이 산악장애물 과제 중 하나인 외줄타기 코스를 극복하고 있다. 사진 한재호 기자

4월 22일 오전 육군보병학교 도시지역작전훈련장은 폐기와 열정, 젊음으로 무장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생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교육생들이 참가한 훈련은 도시지역작전 훈련. 이 훈련은 미래의 주된 작전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에서의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훈련은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개념 이해 교육을 비롯해 공격·방어 과제에 따른 절차 위주의 반복 숙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 마지막에는 교육생들을 공격과 방어팀으로 나눠 쌍방 교전을 치르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펑! 펑! 펑!”

교전 시작에 앞서 교관들이 포병화력에 의한 공격준비 사격을 공중폭발모의탄으로 구현하며 훈련의 긴장감을 높였다. 곧이어 훈련장 곳곳에서 백색연막탄이 자욱하게 피

어오르자, 공격팀의 기동이 개시됐다. 신속하게 장애물을 지대를 극복한 공격팀은 건물 사이로 구간전진을 시도하며 각 구조물에 구축된 방어팀의 진지에 다가섰다.

“탕! 텡! 텡!”

공격팀의 모습을 발견한 방어팀이 재빠르게 사격을 가했다. 이어 곳곳에서 총성과 모의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육생들은 다양한 소부대 전투기술을 적용해 실전적인 훈련을 펼쳤다. 무엇보다 도시지역작전의 특성과 제반 작전요소를 이해한 가운데 도시지역 전투수행능력을 100% 발휘했다. 공격팀은 격실 내부 소탕, 창문 이용 건물 내부 진입 등 공격전투기술을, 방어팀은 개인 전투진지 구축, 격실에 진입한 적 격멸 등 방어전투기술 과제를 적절히 적용해 교전에 임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부대

화력요청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보zon한 공격팀이 방어팀의 주요 진지를 축차적으로 점령하면서 결국 목표를 확보, 승리를 거머쥐었다. 공격작전 중 소대장 직책을 수행한 이후랑(소위) 교육생은 “이번 훈련을 통해 그동안 생소했던 도시지역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기동·화력·장애물 등을 산악지형작전과는 다르게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4월 21일 보병학교 동북유격훈련장에서는 교육생들의 유격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장을 가득 메운 우렁찬 유격구호와 함성은 교육생들의 넘치는 투지를 단번에 확인하게 해줬다. 구슬땀을 흘리며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는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힘들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일반 유격훈련과 다른 두 가지 색다른 점이 눈에 띠었다. ‘팀 체력단련’과 ‘종합장애물 숙달’ 과목이 바로 그것. 팀 체력단련은 10명의 팀원이 군장, 장구류를 더해 120kg에 달하는 환자를 가정한 들것에 15kg 탄통 4개까지 나눠 들고 1시간가량이 소요되는 산악도로를 돌아오는 훈련이다. 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특전사 훈련 중 하나인 환자후송훈련에서 차안해 도입됐다.

또 종합장애물 숙달은 전장 상황을 고려해 구성된 장애물 코스를 완전군장을 메고 완주하는 훈련이다. 현장을 안내한 이원(소령) 유격대장은 “체력과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팀 단위 단결력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유격훈련 과목들”이라며 “훈련 강도가 매우 높기에 안전에 유의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재 옆으로 각자 위치!”

때마침 다섯 개 팀이 팀 체력단련 코스에 도착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자리에 선 교육생들은 교관의 코스 설명에 집중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교관의 별도 지시가 없었지만, 교육생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머리를 맞대고 코스를 가장 빨리 통과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키와 팔 길이를 고려해 위치를 조종하는 팀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우세한 인원 위주로 들것을 들게 해 초반 우세를 선점하려는 팀도 있었다.

“동작 완료 30초 전!”

곧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령이 떨어지자 교육생들은 각자 세운 전략을 곱씹으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어 교관의 출발신호와 함께 교육생들이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내며 코스에 돌입했다. 초반 승기를 잡은 것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이었다. 그러나 가파른 산악도로로 접어들면서 순위는 이내 바뀌었다. 엎치락뒤치락, 순위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한 교육생들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입에선 거친 숨소리가 뿐어져 나왔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한 교육생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힘내자”고 외쳤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듯 교육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내 코스를 돌았다.

훈련 시작 후 40분가량 지나고, 조끼를 입지 않은 팀이 다른 팀들을 제치고 독보적으로 앞서 나갔다. 이 팀의 전략은 오르막길에서는 키가 큰 교육생들이 뒤에 서고, 내리막길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치를 조정해 무게균형을 맞춘 것. 이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팀은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코스 기록을 10여 분 이상 단축하며 골인 지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팀의 일원이었던 강소이(소위·여) 교육생은 “가파른 산악도로에서 환자를 가정한 들것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서로 격려해주며 가장 먼저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다”며 “야전에 나가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대장과 참모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임채무 기자



4월 22일 육군보병학교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보병병과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생들이 쌍방 교전훈련 중 건물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 한재호 기자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무적해병 ‘이상 없다’

해병대 2사단 52대대 공용화기 사격훈련



해병대2사단 52대대 장병들이 4월 17일 진강산 사격훈련장에서 90mm 무반동총 대전차고폭탄을 발사하며 공용화기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이경원 기자

“발사!” “하나 둘 셋… 쭉!”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4월 17일 오전 9시 인천시 강화군 진강산사격훈련장. 이태호(대위) 화기중대장이 사격 명령을 내리자 호안에서 몸을 숙인 채 가늠자를 통해 목표물을 노려보던 90mm 무반동총 사수 박진수 상병이 숨을 한번 고른 뒤 방아쇠를 당겼다. 이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옷이 젖고 비바람이 얼굴을 강타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박상병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격발이 이뤄지자 긴 원통형의 무반동총이 불을 뿜어냈다.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굉음을 울리며 총구를 빠져나간 대전차고폭탄은 500m 앞 과녁에 빨려들 듯 날아가 꽂혔다. 명중을 확인한 부사수 박인욱 상병은 절차에 따라 총

강·약실검사를 했다.

이날 해병대2사단 상승여단 52대대는 실전적인 공용화기 사격훈련을 통해 전투력과 팀워크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훈련에 참가한 대대 장병 24명은 대대가 운용하는 90mm 무반동총을 비롯해 K4고속유탄발사기, HMG, 팬저파우스트(PzF-III) 등을 실사격했다.

대대는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사격 전 예비사격술 숙달훈련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실사격에서는 사수,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이어지는 4중 안전통제가 이뤄졌다. 권순달(중령) 52대대장은 현장에서 전총기를 점검하고, 안전상태와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유창민(중위) 상승여단 병기관은

장병들에게 고폭탄 취급 시 신관과 뇌관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불발탄 처리요령을 설명하는 등 사격장 안전수칙을 교육했다.

또한 대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 전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했고, 훈련장 시설을 방역했다. 장병들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동료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사격 훈련을 했다. 이 밖에도 대대는 산불 예방을 위해 훈련장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짐펌프 등을 배치했다. 소방차도 현장에 대기시켰다.

이날 90mm 무반동총 사격에서 100% 명중률을 보인 박진수 상병은 “고폭탄 실사격이었지만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격

할 수 있었다”며 “90mm 무반동총 사수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전역하는 날까지 그동안 쌓아온 사격 노하우를 후임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격훈련을 총괄한 권 대대장은 “공용화기의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진행했다”며 “특히 운용자 조작 능력 숙달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나라가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승희 기자



해병대2사단 52대대 장병들이 4월 17일 진강산 사격훈련장에서 90mm 무반동총 대전차고폭탄을 발사하기에 앞서 포탄을 삽입하고 있다. 사진 이경원 기자

90mm 무반동총은?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로 명중률과 파괴력이 뛰어나 곡사화기로 제압할 수 없는 동굴 진지 및 축성 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무반동총의 탄약은 탄두, 탄피, 추진 장약이 함께 결합돼 있어 신속하게 장전할 수 있다. 장약이 점화되면서 생긴 팽창된 가스가 폐쇄기의 분사구를 통해 후폭풍으로 방출되는 힘과 탄두를 목표지점으로 비행시키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해 반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갈고 닦은 전투기술, 싹 다 쏟아부었다”

육군3사단 맹호연대 과학화 전투훈련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육군3사단 맹호연대 장병들이 훈련 참가 직전 자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3사단 맹호연대가 4월 2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강원도 인제의 과학화훈련장에서 실전적인 야외 전투훈련을 벌였다.

부대는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배속부대를 포함한 전투단을 구성, 5월 1일까지 훈련을 계속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육군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민간인과 접촉하지 않는 산속의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야외 훈련은 해도 된다는 지침을 하달하자 훈련에 돌입, 연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부대는 훈련 기간 중 중요시설 방호, 전방연대 증원, 초

월지원 등 연대의 작전 임무가 반영된 특화된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41배에 달하는 전투훈련장을 누비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문대항군연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육군의 과학화 전투훈련은 지난 2018년 훈련체계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개편된 데 이어 올해 육군27사단 용호연대가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KCTC 전투훈련장에서 첫 훈련을 가진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육군3사단 맹호연대 전투단은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와 전투 수행능력을 겸증할 기회로 삼고 그동안 6개월간에 걸쳐 훈련 준비에 매진했다. 과학화 훈련이 마일즈 장비를 착

용하고 실제 전장 상황을 묘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감안, 그동안 사단에서 보유한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훈련을 계속했다.

또 전투원들이 산악지형을 극복할 만큼 체력을 향상하도록 주둔지 내에 산악지형 뛸걸음 코스를 개발·적용했다. 대량전상자 처리와 장애물 개척 TF 훈련, 전투근무지원대, 야전 급수장 운용 등 실제 연대급 전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장 환경과 유사한 훈련상황을 자체 조성해 훈련 집중도도 높였다.

부대는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전승 표어·포스터 경연대회, 2018년 훈련 참가 선배 전우 무용담 소개, 전장 공포증 예방교육, 유서 작성 등 전장 상황과 연계한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했다. 전승 결의 구호를 창작해 제작하는 등 정신무장을 위한 활동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전우애를 발휘해 전역을 연기하고 휴가를 반납하는 등 후배 전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담도 이어졌다.

부대 장호운 병장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군 생활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전역을 연기하고 훈련에 참가했다. 장 병장은 “든든한 선임병 역할을 하며 조금이나마 후임의 사기를 올려줄 방법은 전역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언 병장을 비롯한 10명의 용사는 최대 열흘간의 휴가를 반납한 채 훈련에 참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전역 전 휴가를 가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일정상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열흘 휴가를 반납한 김 병장은 “군 생활 중 가장 큰 훈련을 앞두고 그냥 전역하자니,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 곁에 있는 전우들과 끝까지 싸워 훈련에서 이긴 뒤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직 지원교육을 앞둔 최태한대대 주임원사는 개인 연가까지 반납하고 훈련에 참가했다. 최 원사는 “대대원들이 훈련에 매진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전우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전직 지원교육을 연기하고 연가를 반납해서라도 훈련에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대 주임원사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다운 하사 등 6명의 전문하사는 대부분 2018년 이동 병 시절 과학화 전투훈련 참가 경험이 있는 장병들로,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전문하사로 임관했다. 이 중 정호성 하사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아 입대 5개월 후인 2018년 10월 있었던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완치된 몸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문하사에 지원하게 됐다. 양 하사 등 나머지 5명은 이번 훈련이 어느 때보다 유경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전문하사 임관을 결정했다.

김정근 육군3사단 맹호연대장은 “장병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연대 전투원의 의지를 다지는 모범사례가 됐다”며 “전 장병이 과학화 전투훈련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유감 없이 발휘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대는 훈련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발열·문진체크를 실시했으며, 훈련 2주 전 감염 위험지역을 다녀온 장병은 훈련에서 제외했다.

훈련 중 세면·세탁이 제한되는 점과 훈련 기간을 고려해 마스크도 1인당 최대 10장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 보급했다. ☞

최한영 기자

